

수험생활 성공하는 마인드

내가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마인드로 생활 할 것인가?

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여러분.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. 과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글에서는 입장을 떠나서 최대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, 수험생 입장에서 느낀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. 혹시라도 과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지요. 이 글은 제목에 써있는 대로 내가 만약 이 종이만 가지고 수험생, 그러니까 고등학생, 넓게는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마인드로 생활 할 것인가에 대해 써놓은 글입니다. **예상 독자는 현역 중학생, 고 1, 고 2, 아직 수능을 치르지 않은 고 3**입니다. 그냥 남 입장에서 조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쓰는 것이 더 와닿고 실제로 행할 수도 있는 조언일 것입니다. 이 플랫폼은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기에 공식적인 글에서는 쓸 수 없는 내용도 터놓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럴수록 더 유익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. 말하자면 이 글은 동네 대학생 형 누나에게 사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언 같은 것입니다. 이 글은 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저는 이 글을 들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게 가능하다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.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첫 번째로 저에게 용돈이 생길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험생활에서 성공하는 원칙을 가지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시작해봅시다.